

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

- '25.7.31.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

◇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

I. 국내

□ 산업계

- **삼성물산·UAE원자력공사, 글로벌 원자력 사업 개발에 '맞손'**(25.7.30. 연합뉴스)
 -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함께 했던 UAE원자력공사(ENEC)와 글로벌 원자력 시장 개발·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토대로 ▲ 신규 원전 건설 등의 원전 프로젝트 ▲ 소형 모듈원자로(SMR) 사업 투자·개발 ▲ 원자력 기반의 수소 생산 사업 ▲ 원자력 서비스·장비 업체 투자에 협력하기로 하고, 전략적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
-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트램 만든다...현대차그룹 친환경 모빌리티 확장**(25.7.30. 디지털타임스)
 -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현대자동차 등 그룹의 수소 역량을 결집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와 차세대 전차에도 2040년부터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전동화를 이룬다는 방침
 -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전기트램,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 등을 확장하며 수소 역량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수소 비즈니스 플랫폼 ‘HTWO’를 통해 그룹사의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수소 모빌리티 기술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지자체

- **당진시, 청정수소 생산 특화단지 조성 24개 기관과 업무협약**(25.7.30. 뉴스1)
 - 충남 당진시가 국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24개 기관과 '당진 청정수소 생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힘
 - 수소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수소 산업 관련 기업과 기술·인프라를 집적화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수소 공급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

□ 기관

- **기계연, 캐나다 천연자연부와 글로벌 공동연구 본격화**(25.7.30. 파이낸셜뉴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이 자원순환과 에너지 전환 등 청정기술 분야에서 북미 주요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번 협약에는 △암모니아 회수 및 제거 기술 △배터리 소재 회수 및 산업폐기물 처리 기술 △공동 워크숍 및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기술 성과 창출을 공동 추진할 예정

□ 연구계

- **경상국립대학교 최명룡 교수팀, 하이드라진·질산염 기반 청정 암모니아·수소 시스템 구현**(25.7.30. 한국강사신문)
 -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광화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연구지원센터장) 연구팀이 고엔트로피 합금 기반 수소·산소·하이드라진 산화 반응용 다기능 촉매와, 질산염 저감을 위한 고내구성 전기화학 촉매를 각각 개발했다고 밝힘

II. 해외

□ 글로벌 정책 동향

○ 독일-캐나다, H2Global 기반 4억 유로 규모 양자형 수소입찰 추진 계획 발표(FuelCellsWorks, 25.7.29)

- 독일 정부는 캐나다와 공동으로 4억 유로(약 4.4억 달러) 규모의 양자형 그린수소 입찰 사업* 추진하기 위해 시장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 * 독일-캐나다 간 양자형 그린수소 입찰 사업: 공급국(캐나다)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요국(독일)이 장기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재정을 투입해 생산·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
- 본 사업은 H2Global 이니셔티브 하에 추진되며, 양국이 각각 2억 유로씩 출자하여 캐나다산 그린수소 및 그 파생연료(RFNBOs)를 독일에 공급하는 구조로 설계됨
-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가 주관하는 이번 의견수렴은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찰 구조 설계와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해당 입찰은 독일-캐나다 간 2024년 체결된 MOU에 기반하며, 비영리기관 H2Global 재단 산하 HINT.CO GmbH가 재원을 집행해 공급가와 수요가 간 가격 차를 조정할 예정임
- 이번 사업은 기존 H2Global 입찰과 달리 양국 간 협력 기반의 이행구조를 띠며, EU 외 국가와의 공급망을 통한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를 목표로 함
- 독일 정부는 본 입찰을 통해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명확한 가격 시그널 제공 등을 통해 전 세계 수소시장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임
- 이번 사례는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모델로, 청정에너지 분야 글로벌 연대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산업 동향

○ Baker Hughes, 저탄소 장비 기업 Chart Industries 136억 달러에 인수 발표(HydrogenInsight, 25.7.30)

- 미국 에너지 기술기업 Baker Hughes는 글로벌 수소기술 선도 기업 중 하나인 Chart Industries를 약 13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 Baker Hughes: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석유·가스 및 신에너지 분야의 장비와 서비스 제공
 - ** Chart Industries: 수소·LNG 등 저탄소 에너지 산업을 위한 저장·운송·처리 장비를 제조하는 미국 기반의 산업 장비 전문 기업
- Chart는 수소 산업용 압축기, 액화기, 액체수소 저장탱크, 충전 설비 등 핵심 장비를 제조하며, 본사는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함
- 다만 이번 인수는 수소기술보다 미국 정부가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LNG 기술 부문에 더 큰 전략적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됨
- Baker Hughes는 이미 수소 압축기, 밸브, 터빈, 센서, 암모니아 생산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연간 3.25억 달러의 비용 시너지를 3년 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CEO Lorenzo Simonelli는 “Chart와는 이미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온 관계로, 제품군이 상호 보완적이며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 제공에 강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Baker Hughes는 이번 인수를 통해 수소, LNG, 데이터센터, 신 에너지 등 저탄소 고성장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임
- Chart는 2024년 기준 매출 42억 달러, 세전이익 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에 65개 제조시설과 50개 이상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임
- 인수가격은 주당 210달러로 발표 당시 주가(171.65달러) 대비 큰 프리미엄이 붙었으며, 발표 직후 주가는 198달러까지 상승함